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74호 【루게 제 24487호】 주제 103(2014)년 3월 15일 (토요일)

전 당, 전 군, 전 민 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 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세월은 흐르고 시대는 변하고있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남긴
참혹한 폐허도 흔적없이 사라진지 오래다.
그러나 유독 조선반도에서만은 국토량단과
민족분열의 비극이 지속되고 항시적인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이 배회하고있다.
사태는 전적으로 미국의 낱장도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직결되어있다.
우리 나라의 분열에 직접 관여한 트루먼행정
부로부터 현 오바마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백악
관의 주인은 계속 바뀌었지만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날을 따라 더욱더 악랄한 내용으로
수정보충되고 강화되고있는것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이다.
최근에 들어와서만도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
으로 말살하고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며 군사적
으로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
과 그에 따른 움직임은 더는 그대로 방인할수
없는 엄중한 사태로 번져지고있다.
우리의 자위적책역력을 두고 벌리고있는
미국의 《제제》와 《고립봉쇄》책동, 로골적인 군
사적위협행위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예측할수
없는 위험한 전제경으로 치닫게 하고있으며
없는 사실을 날조하여 확산시키고있는 우리에
대한 《인권》소동은 위협도수를 넘어 극단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어 며칠전에는 미국무성이 공개석상에 직
접 나서서 우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민주주의모델이 못된다.》느니, 100% 찬성
투표에 《의심이 간다.》느니 하면서 선거결과
까지 함부로 시비질해대는 도발도 서슴지 않
았다.
돌이켜보면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며 무작정 결고들면
서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자주권을 함부로 짓
밟고있는것이 미국이며 우리 사상, 우리 제도
를 허물어보려고 음흉하고 어리석게 놀아내고
있는 불구대천의 원수도 바로 미국이다.
벌어지고있는 험악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일치한 의사를 담아 미국
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미국은 더 늦기 전에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모든
조치들을 전면철회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지금 미국은 이러한 정책적결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양기식기준과 원
칙을 자대로 우리를 함부로 《도발자》로, 《위협
대상》으로 지목해놓고 온갖 불순세력들을 굶어
모아 《제제》와 《고립봉쇄》의 도수를 무작정 높
이고있다.
원래 미국은 가장 과격치한 도발과 침략의
원흉이면서도 남을 겨우로 매도하고 전쟁과 과
피의 악명높은 주범이면서도 늘 평화의 사도처
럼 행세하는 강도의 무리들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침략적인 대외정책과 전략
에 언제나 《평화》와 《민주주의》, 《억제》와
《신속반응》과 같은 험란한 면사포를 씌우고있
으며 로골적인 침략전쟁행위도 늘 《방어적》이
고 《년례적》이라고 우겨대고있다.
얼마전에는 미국무장관 케리까지 공식석상
에 나타나 우리를 《악의 나라》, 《사악한 곳》, 《매
해된 나라》라고 헐뜯어대며 《압박과 제제의
효과 가능하게》 하고 우리가 굶어들게 만들어
야 한다고 제쳐냈다.
그러나하면 지난 3월 초 서울에 기여들었던
전 미국대통령 부쉬놈 역시 오물통에나 처박혀
있을 몇몇 《탈북자》스레기들을 《영웅》이라고
취주며 우리 제도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부실하게 늘어냈다.
미국의 이러한 강도적인 행태가 다른 대륙,
다른 나라들에서는 통할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우
리 나라,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할
수 없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조래할 과멸적후과에 직면하기 전에 스스로 부
당한 모든 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철회하는것이
좋을것이다.
2. 미국은 우리의 핵억제력에 대한 똑
바른 견해와 입장을 가지고 《선 핵포기》
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근간》이라고
함부로 떠벌리며 어리석게 놀아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여러 기회에 밝힌바 있지만 조선반도
의 핵문제는 지난 세기 50년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으로부터 발달되었다.
그때 미국은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것
이 미합중국의 핵정책》이라고 오만무도하게
놀아대면서 1,000여발의 핵탄과 발사수단
들을 비밀리에 반입하여 남조선도처에 비축
해놓았다.
그 이후에는 각이한 핵타격수단들을 우리의
명공, 명해, 명토에 끌어들이면서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공갈을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는것으
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
하고있다.
이러한 형편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
호하기 위해 부득불 가지게 된것이 우리의 자
위적인 핵억제력이다.
우리는 이미 다종화된 우리 핵타격수단의 주
되는 과역이 미국이라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끝장내
는데 기본을 두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
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
으며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행동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대화도 있고 미북관계개선도 있
다.》는 넋두리를 계속 늘어놓고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결코 대화에 목이 매고
판계개선에 현혹되어 씨름을 거세수단도, 흥정
물도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더우기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인정》하
지 않으면 없어도 《인정》하면 존재하는 그런
유형수단이 아니다.
지금 미국은 마치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변할것을 바라면서 그 무슨 《인내전략》에

매달리고있지만 미국이 바라는 결과는 영원히
차레지지 않을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정상적인 현실적안목과 사고
를 가진 주인이 백악관에 들어설 때까지 높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보자는것이다.
그러나 지극치며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
속되는 한 자위적책역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
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계속되며 그 위력을
파시하기 위한 우리의 추가적인 조치들도 연속
있게 된다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 미국은 새로운 대조선적대시정책
의 일환으로 벌리기 시작한 우리에게 대한
러무니없는 《인권》소동을 당장 중지하여
야 할것이다.
인간의 기본권리인 인권이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에서처럼 가장 원만히 보
장되고있는데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것
이다.
물론 우리는 아직 남들처럼 부유하게 살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사람 못살
사회, 약육강식의 전횡과 독단이 판을 치고 진
정한 인권이 참혹하게 유린당하고있는 미국과
같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는 버림받지 않는다
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립장이다.
우리는 제법과 제순으로 누구나 다 잘사는
무릉도원을 이 땅에 일떠세우려는 휘황한 목표
를 세우고 그것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나가는
크나큰 의지와 광명의 세계에 사자것을 더없는
궁지와 자량으로 여기고있다.
그런데 미국은 썩어한 우리에게 대해 《최악의
인권불보》도, 《암울한 인권사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함부로 헐뜯어대고있다.
문제는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인권》소동이 제
나라, 제 고향에서 갖은 악행과 추행을 일삼다
가 제 천혈옥물에 갇혀서 버림받고 쫓겨난 인
간쓰레기들의 히스테리적광기와 구린내나는 비
린칭을 그대로 옮겨놓았다는 모략국, 날조국이
라는데 있다.
덩치큰 미국이 자기 체모에도 어울리지 않게
이미 사람으로 살기를 그만둔 송장무리나 다름
없는 인간쓰레기들까지 꺼안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헐뜯어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가관인가.
그야말로 미국이 만들어내는 21세기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인권우에 국권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마 미국인 경우에도 국가를 반대하
고 그 존엄을 위태롭게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시퍼런 칼날을 휘둘러대며 세계최대
의 수감자들을 보유하고있는지도 모른다.
우리 역시 주권의 주인이 된 인민모두가 스
스로 선택한 사상과 제도를 해치는 극소수의
불순적대세력에 대해서는 자비와 관용을 배풀
지 않는다.
한것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오물이고 쓰레기
이며 끌어버리는 용광로외물우에 떠있는 슬라
크와 같은 불행한 존재들이기때문이다.
미국은 남의 집안일에 대해 횡설수설해대기
전에 제 처지를 알고 시누른 제코나 씻는것이
 좋을것이다.
미국의 핵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시대추세
를 외면하고 상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것으
로 하여 궁극적파산을 면치 못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력사가 보여준 철폐이다.
남강도적인 주장으로 우리의 핵억제력포기를
동원 야망실현에 매달릴수록, 모략적인 《인권》소
동으로 존엄을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헐뜯고
제제비난의 도수를 높일수록, 부당한 《도발》과
《위협》을 내뿜으며 조선반도에 험악한 전쟁국
면을 인위적으로 몰아올수록 미국은 자가당착적
인 모순에 빠져들게 될것이며 내리막길에 들어선
자기 전도를 더욱 어둡고 비참하게 만들것이다.
남아버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더 늦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고 현실적인 새 정책을
수립하는것이 미국의 국익은 물론 본토의 안전
을 담보하는데도 유익할것이다.
미국은 현실을 맹정하게 판단하고 대세에 부
합되는 정책적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후승리를 확신하며 힘차게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절
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철저히 짓부
서버릴것이다.
주제 103(2014)년 3월 14일
평 양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답전을 보내어왔다

평 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 동지
나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께서 나의 생일 78수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축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나는 우리 라오스와 조선 두 당, 두 나라 정부와 인민들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변함없이 계속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과 승고한 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실것을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쑤말리 싸이냐쑤
2014년 3월 12일
비엔티안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7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방송위성TV방송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 공연에 당선된 예술선전대들의 공연을 관람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인민군 제1차 예술선전대공연에 당선된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 제324군부대, 제233군부대의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예술선전대원들이 사상에술성이 높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대단족을 표시하시었다.
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군인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불타는 조국애, 위훈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작품들을 창작하였다고 하시면서 선군시대의 새 문화창조자들인 그들의 혁명적인 창작, 창조기쁨을 거듭 치하하시었다.
조선인민군 제567군부대, 제324군부대, 제233군부대의 예술선전대들에 대한 경연평가를 모두 특등으로 할것을 친히 제의하시고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특별감사를 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 기동성을 가지고있는 예술선전대활동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공연활동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들인 환구망, 보도망, 참고소식망, 중국망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우와 같은 소식을 올렸다.
중국의 《로보일보》, 인터넷홈페이지 동북보도망, 인터넷신문들인 《현두》, 《현두스판 타임스》, 《스레이츠렌》, 이란신문 《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 여러 나라에서 계속 보도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 《미국은 남을 함부로 결고드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단동일보》, 《연변일보》, 《홍콩강일보》, 홍콩 방송위성TV방송, 이란의 파르스 통신, 프레스TV방송, 라디오 방송, 만파통신, 인디아의 신문 《타임스 오브 인디아》, 지 뉴스TV방송, 오스트랄리아의 ABC방송, 우루파이신문 《라후베루드》와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가 5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담화의 전문 또는 요지를 보도하였다.
* *
스위스조선투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 《미국은 남을 함부로 결고드는 못된 악습을 버려야 한다》를 지지하여 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인민군 전략군부대들이 정상적인 훈련계획에 따라 로켓트발사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훈련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국제항해질서와 생태환경에 사소한 영향도 없이 순조롭게 원대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뻔뻔스럽게도 조선의 로켓트발사훈련을 두고 《도발》이요, 《위협》이요 하면서 함부로 결고들고있다.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담화에 강조된것처럼 미제와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키 리콜》,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실제적인 도발이며 위협이다.
제명에서 진행되는 정의로운 자위적훈련을 《도발》이라고 매도하면서도 남의 나라 땅에서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감행하는 저들의 침략전쟁연습에 대해서는 《방어적》이요, 《년례적》이요 하면서 정당화하는것이야말로 철폐된 미적지근기이다.
이것은 또한 남을 결고들고 자화자찬하기 좋아하는 미국의 저명한 행위이다.
공화국을 《악의 나라》라고

북남고위급 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담화 여러 나라에서 보도

북남고위급 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남조선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비방을 중지하고 공화국을 존중하며 북남고위급접촉에서 비롯된 협의를 성실히 리행할것을 요구하였다.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 대변인 담화 《신뢰조성》으로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기초를 쌓아야 한다고 웨쳐대던 남조선당국자들이 이제는 동족비방과 중상이 도수를 넘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까지 함부로 헐뜯는 지경에 이르게 된데 대해 개박했다.
이와 관련하여 북남고위급접촉 북측대표단은 남조선당국자들부

대한 존중과 합의에 대한 성실한 리행에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신뢰조성》이 있고 북남관계의 밝은 미래가 있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변인은 지금은 결코 결별할 말로 민족을 기만할 때가 아니다. 남조선당국의 태도와 움직임을 엄밀히 주시해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중국의 신화통신, 로씨야의 이따르-파스통신, 일본의 지지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선군의 기치높이 사회주의를 수호하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는 어제도 오늘도 인류의 이상이며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하지만 그 지향과 요구는 바란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침략과 약탈을 본성으로 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전쟁책동으로 지금 이 시각도 지구상의 도처에서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는 때에 어떻게 되어 우리 조국에서 만은 나라의 존엄과 인민의 행복이 온전치 수호되고있는 것인가. 역사의 공진 시련과 난관을 헤치고 세기와 세기를 이어 힘차게 나뉘어온 주제의 사회주의의 불은 기어 어떻게 되어 퇴색도 변색도 없이 변함없이 나뉘고있는 것인가.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긍지높이 선언할 것이다.
그처럼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드시오 사회주의의 위업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정치가, 탁월한 군사 전략가이시던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었기때문이라고, 또 한분의 결실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혁명투쟁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었기때문이라고.

그렇다. 위대한 천출명장들을 높이 모시어 우리는 온갖 원수들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편편전승하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이 천만의 심장을 세차게 울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의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우리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내는 역사의 과업을 창조하였나이다.》
어떤 민족이나 절절하게 품게 되는 숙원의 하나가 강국을 일떠세워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떨치려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피를 지닌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천지주권속에서도 고매하지 않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닐수 있고 그 신념과 담력, 배짱으로 혁명위업을 꽃피어 이끌어나갈수 있다.
1990년대 초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주의의 불은 더 높이 추켜들도록 하시고 우리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시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선군은 곧 자주이고 존엄이며 애국, 애족이다!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 이었다.

피눈물의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그 시각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다박속초소에 거룩한 발자취를 아로새기어 주제의 사회주의의 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할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파죽이이다》는 주제의 사회주의의 사상과 사업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어진다도 절대불변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 이었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하무랴면 가시자면 경제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생활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나라에 조성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끌고나갈 기본로작을 경제에서가 아니라 군사에서 찾으시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군사에 최대의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보시었다.
숙측은 공상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선군의 기치를 이어가실 때 우리 장군님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시였는가.

그런다. 위대한 천출명장들을 높이 모시어 우리는 온갖 원수들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편편전승하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이 천만의 심장을 세차게 울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의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우리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내는 역사의 과업을 창조하였나이다.》
어떤 민족이나 절절하게 품게 되는 숙원의 하나가 강국을 일떠세워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떨치려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피를 지닌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천지주권속에서도 고매하지 않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닐수 있고 그 신념과 담력, 배짱으로 혁명위업을 꽃피어 이끌어나갈수 있다.
1990년대 초 격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주의의 불은 더 높이 추켜들도록 하시고 우리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신 위대한 장군님 이시다.
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선군은 곧 자주이고 존엄이며 애국, 애족이다!
이것이 우리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 이었다.

피눈물의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 그 시각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다박속초소에 거룩한 발자취를 아로새기어 주제의 사회주의의 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할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파죽이이다》는 주제의 사회주의의 사상과 사업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어진다도 절대불변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 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다박속초소에 거룩한 발자취를 아로새기어 주제의 사회주의의 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할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파죽이이다》는 주제의 사회주의의 사상과 사업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어진다도 절대불변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 이었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하무랴면 가시자면 경제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생활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나라에 조성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끌고나갈 기본로작을 경제에서가 아니라 군사에서 찾으시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군사에 최대의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보시었다.
숙측은 공상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선군의 기치를 이어가실 때 우리 장군님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시였는가.

그런다. 위대한 천출명장들을 높이 모시어 우리는 온갖 원수들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편편전승하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이 천만의 심장을 세차게 울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의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우리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내는 역사의 과업을 창조하였나이다.》
어떤 민족이나 절절하게 품게 되는 숙원의 하나가 강국을 일떠세워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떨치려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피를 지닌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천지주권속에서도 고매하지 않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다박속초소에 거룩한 발자취를 아로새기어 주제의 사회주의의 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할 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천명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는 파죽이이다》는 주제의 사회주의의 사상과 사업에 대한 우리 당과 인민의 신념과 의지는 하늘이 무너지고 지구가 깨어진다도 절대불변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장엄한 선언 이었다.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은 나라의 어려운 형편을 하무랴면 가시자면 경제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생활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나라에 조성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고 사회주의를 승리로 이끌고나갈 기본로작을 경제에서가 아니라 군사에서 찾으시었다.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군사에 최대의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보시었다.
숙측은 공상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있는 인민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공장이나 농촌이 아니라 군인들을 찾아 선군의 기치를 이어가실 때 우리 장군님의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시였는가.

그런다. 위대한 천출명장들을 높이 모시어 우리는 온갖 원수들의 사회주의수호전에서 편편전승하고있는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의 구절이 천만의 심장을 세차게 울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지난 세기 90년대의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우리는 제국주의련합체력의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내는 역사의 과업을 창조하였나이다.》
어떤 민족이나 절절하게 품게 되는 숙원의 하나가 강국을 일떠세워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고 떨치려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절대불변의 신념과 피를 지닌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천지주권속에서도 고매하지 않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한평생 초강대강행군천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다.
그 자욱자욱을 뜨겁게 돌이켜 불수록 우리 장군님께서 헤치신 삼복칠강행군길이 못 잊을 추억을 불러일으키며 우뚝이 안겨온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장군님께서 는 조국앞에 가로놓인 엄숙한 난국을 타개하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사생결단의 길, 험난한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시였습니다.》
지금도 귀기울이면 머나먼 선군명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군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들려오는 듯하다.
자신께서는 최전선에서 나간 병사들을 만날 때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올해 삼복칠에라도 날씨가 매우 무더웠지만 그전처럼 계속 인민군군부대들을 시찰하면서 병사들을 만나 보고한다고, 최고사령관으로서 병사들을 찾아갈 때 날씨가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시던 우리 장군님의 뜻깊은 말씀.

삼복칠강행군으로 이어진 선진시찰의 길에서 겪으시는 천만군대의 고향에 다 못이 두시며 그 모든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락으로 여겨신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숭고한 애국헌신에 떠받들려 우리 조국이 더욱 굳건해진 것 아니랴.
장영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모든것을 장려바치시어 우리모두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꽃피우실 선진세의 애국자시었다.
삼복칠강행군!
우리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이 뜻깊은 시대에는 내 조국방우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을 장려바치시어 우리모두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꽃피우실 선진세의 애국자시었다.
삼복칠강행군!
우리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이 뜻깊은 시대에는 내 조국방우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을 장려바치시어 우리모두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꽃피우실 선진세의 애국자시었다.

조국의 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선 우리 병사들에 대한 이런 불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전진선의 위엄이 이어지었다.
그 전진길마다서서 우리 장군님의 야전부사라는 말을 새웠다.
제물주는 삼복의 무더위속에서 한 인민군부대의 중대를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군인들이 이 세상에 버려놓은 것이 한없이 혼란의 설참에 목욕도 하고 더위도 맞을수 있게 꾸러놓은 더위도를 바라보시며 얼마나 기뻐하시었는가.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시오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지금처럼

마를 세웠던 야전부

마를 세웠던 야전부
삼복칠강행군으로 이어진 선진시찰의 길에서 겪으시는 천만군대의 고향에 다 못이 두시며 그 모든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락으로 여겨신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숭고한 애국헌신에 떠받들려 우리 조국이 더욱 굳건해진 것 아니랴.
장영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며 자신의 모든것을 장려바치시어 우리모두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꽃피우실 선진세의 애국자시었다.
삼복칠강행군!
우리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이 뜻깊은 시대에는 내 조국방우에 국력이 강하고 모든것을 장려바치시어 우리모두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꽃피우실 선진세의 애국자시었다.



혁명전적지탐사를 통하여 항일혁명투사들의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따라배우고 있다. -정 북송영 지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위대한 목표를 내세우고 아름다운 미래를 가꾸는 혁명가에게 있어서 자만자족, 자화자찬은 절대금지이다.
이미 달성한 성과를 놓고 자만자족, 자화자찬하지 말고 혁명과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민들에게 실지 혜택을 주어야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발양된다 이것이 우리 당의 의의이다.
위대 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자만도취는 안일과 편대, 무책임성을 낳는다.》
벼이삭은 잘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인간수령의 림리도 마찬가지이다. 깊은 강일수록 소리없이 흐른다. 참된 인간일수록 머리를 숙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사색하고 애낸다.
지식의 자랑고자 넘쳐나면서

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만 자랑스럽게, 겸손하게 배우려 애쓰는 인간, 훌륭한 일을 해놓고도 성취하지 않아 마음을 바세이 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돋보이는가.
군인사적 사고방식의 발전인 자만자족, 자화자찬은 혁명에 유해로운것으로서 사람을 저속한 존재로 만들어 안일과 해이, 권태와 무책임성을 낳는다. 자기가 자기에 만족하고 자기 사업에 자만도취하여 마음의 랑계를 풀어놓는 인간은 벼이삭이 머리를 쳐든 실익은 벗이삭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을 조금 해놓고 큰일이 나 해놓은듯 버럭 떠들기 좋아하거나 칭찬해주면 우쭐떨거리면서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수양이 부족한 인간이다.
요구성은 무한한 발전의 원천이다. 당의 위대한 사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살며 투쟁하는 혁명가의 고결한 정신세계 비결 높은 요구성, 이는 혁명가로서의 자부심과 자화자찬을 배격하고 당과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실하게 하는, 인민의 추억속에 깊이 빛나게 하는 필수적인 품성이다.
모든 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차이를 늘 늘 탐구하며 만물들을 목표로 하는 혁명가들의 요구성은 개인의 요구가 아니라 당의 요구, 혁명의 요구를 반영한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에 대한 우리 당의 요구성은 사업에서의 담보나 만족이 아닌

라 더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할것을 바라는 지향적인 요구성이며 기계적으로가 아니라 창조성을 내어 자각적으 하게 할것을 바라는 능동적인 요구성이며 엄격한 규율과 질서에 따라 움직일것을 바라는 절도있는 요구성이다.
우리 당이 주장하는 혁명가의 요구성은 포지한 사업정형을 보고 받고 장악이나 하는 행정실무적 방법의 요구성이 아니라 포지한 사업을 총화하고 성취시켰다는 사실성까지 철저히 결속하도록 하는 반복과정의 요구성이다.
요구성을 제기할것을 모르는 일군을 대우를 송출할수 없고 사업을 내일수 없는 무책임 존재에 불과하며 현상유지는 할수 있으나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양면》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당에서 이러한 사업방법을 그토록 경계하는것은 일군들을 강한 요구성속에서 단련하고 수양하기 위해서이다.
일군들속에서 제일 경계하여야 할것은 자화자찬하는것이라는것이 우리 당의 일관한 의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부 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자화자찬을 지적하시는데는 세기를 향하여 고상히 통찰하러는 그의 숭고한 리성이 무한대하기때문이고 장악이나 하는 행정실무적 방법의 요구성이 아니라 포지한 사업을 총화하고 성취시켰다는 사실성까지 철저히 결속하도록 하는 반복과정의 요구성이다.
요구성을 제기할것을 모르는 일군을 대우를 송출할수 없고 사업을 내일수 없는 무책임 존재에 불과하며 현상유지는 할수 있으나 사업을 전개하지 못하는 《양면》에 지나지 않는다.

사상교양사업을 선차적으로
철산군 선군리당위원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을 높이 받들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불려일으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쏟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사업에 앞장서고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사상을 발달하여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구체적인 계획에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서한을 연구하여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철의 지름길을 밝힌 강령적지침이라고 하면서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 율해에 동급생산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켜 나가기라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실속있게 진행되는 사상교양사업을 통하여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군은 작업의 실천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농업부문보조장대 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에 대한 해설사업을 진행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날에 5(1961)년 3월 어느 날에 있는 일이다. 당시 학생인 일부 학생들에게는 선행고전에 대한 이상화와 사대주의, 교조주의적학습태도가 나타나고있었다.
이날 학생들에게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지적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우리는 언제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당시 혁명에 충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자기 조국과 인민을 위하

어 자기 나라에 대하여 더 잘 알아야 한다는 뜻있는 말씀이였다.
학생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아버지수령님의 로작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고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공부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참다운 혁명가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

안으며 학생들은 자기 나라의것이라는 범주의 력을 이루는것은 바로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이라는것을 비로소 푼듯히 알게 되었다.
학생들에게 학습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밝힘으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보다 절절히 가슴에 파고들며 울리었다.
《김일성선집》을 비롯한 수령님의 로작 학습에 힘을 넣어야 하

며 자기 완전에 정통하여야 한다. 자기 완전을 잘 알기 위해서는 조국의 현실을 잘 알고 우리 나라의 력사와 지리, 문화와 풍습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한다. 학습에서 언제나 옳은 지혜와 필장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것을 배우는 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
조선혁명의 앞길을 내다보시며 미래의 주인공임을 청년대학생들이 자기 조국을 더 잘 알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은 학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었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최대의 유산

에 이르러는 장구한 나날에 통일단결의 숭고한 전통을 계승하여 령도자의 두리에 사상의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온갖 못져나가는 강철의 리대로, 그 어떤 정치적인 사상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불패의 당으로 위용돋아왔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혁명명도에 의하여 우리 당이 수행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사상적순결체, 조직적전일체로 비상히 강화되어온 나날은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진 의의의 날이었다. 세상이 우리 당과 같이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 역사적과업을 빛나게 실현한 당은 없다. 우리 당이 단결력과 조직력을 잃어서나 령도적지위와 전투력, 인민에 대한 헌신적부정성에 있어서 최상의 높이에 오른 백전백승의 혁명정당, 선군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 강화발전된 여기에 절세위인님께서 강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특출한 공적이 있다.

어느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우리 당이 명실공히 수행의 당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온전하고 고수하고 빛어나가도록 노력하여 령도하고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시고 모든 당사업과 당활동을 철저히 수령님의 장군님시대로 해나가도록 령도를 손잡아 이끌어주시는분이 우리 원수님 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매면 바뀌어도 우리 당은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당으로 빛을 뿌려 줄 것이다. 통일단결을 잃어버리면 조신로동당의 력사는 절세위인들의 력사로 끝없이 이어질것이다.
대를 이어 계승되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전당이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굳게 뭉친 수령옹위의 결정체이다.
혁명의 향도적력량으로서의 당의 위력은 곧 단결의 위력이며 가장 고고한 단결은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단결이다. 훌륭한 지도 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하고 당과 군대와 인민을 하나로 굳게 묶어세워 줄 수 있는 이 이끌어 나가는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여 전당이 철결같이 뭉쳐질 때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갈수 있다.
천만군민이 혁명의 수뇌부결사

우의를 확고한 혁명적신념으로 간직하고 당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기에 우리 당은 어떤 천지주권에도 끄떡없는 선군혁명투지의 대오로 위용떨치고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이 기초하여 다져지고 공고화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 정신은 우리모두의 신장속에 역력 불변의 신념으로 간직되고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두시라 하자!》는 신념의 구호를 높이 들고 투쟁의 권위와 안위를 위해서라면 한복속 사슴없이 마치듯이 천만군민의 숭고한 정신세계이다. 불의의 정황속에서 영웅적희생정신을 발휘하여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결사보위하고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와 타래치는 불발속에서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최상화를 목숨까지 지켜낸 영웅투지의 영웅적사들의 위훈은 수령님의 응위에 바쳐진 삶이 얼마나 값있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령도자의 두리에 친결, 단결의 정신을 이 끌어 나가는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여 전당이 철결같이 뭉쳐질 때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갈수 있다.
천만군민이 혁명의 수뇌부결사

당은 사상과 리념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뭉쳐진 사람들의 정치조직이다. 일시적인 리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실무적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결은 사상투쟁에 불하하여 ...
지난 시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를 온전히 수호해온 나날은 우리 당의 통일 단결이 배배반배로 다져진 불멸의 단결기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 버리고 부르주아사상문화적 침투를 비롯한 온갖 반사회주의적책동을 미친듯이 벌였다. 그러나 위대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당의 통일단결은 어떤 사상문화적 침투나 모략책동이 통할수 없었다. 적들의 책동이 악랄해질수록 위대한 사상의 기치높이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혁명의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오호려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였다.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백송의 기치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령도해나가고있다. 우리 당을 천만년월일이 흘러도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전진하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투쟁하며 수령의 통합적으로 강화발전시키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한 령도가 있기에 오늘 우리 당은 전당이 실무적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진 단결은 사상투쟁에 불하하여 ...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그 당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데 있어 통일단결을 힘있게 과시하는것은 수령의 지시이다.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것은 그 당에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실현하는데 있어 통일단결을 힘있게 과시하는것은 수령의 지시이다.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확고한 관점과 투쟁기풍은 전체 당원들이 혁명의 수뇌부의 유일적령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면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확립하자고 하는것은 혁명의 정치적참모부인 당의 통일단결과 전투력을 배방으로 강화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율훈을 철저히 관철하고 우리 인민의 몸과 리상을 하무랴리 실현 하자는데 있다고 가르치시었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난도 허물고 바다도 매우어 내내와 내내를 뛰어넘는 시대속도를 창조해나가고는 혁명군대의 투쟁정리도 일본세,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해나가고있는 자랑찬 모습은 우리 혁명대오의 통일 단결의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최대의 유산인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바로 선군혁명의 만년정리이며 우리 조국의 영원한 미래를 담보하는 승리의 기치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의 통일단결은 오늘날도 래일도 영원히 필승불패의 단결로 위력있게

박 명 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행행부분, 기초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
게 일으켜야 합니다.》

증산의 동음은 전력생산자들의 위훈을 전한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노동계급의 투쟁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를 자랑한 노력적성과 빛 내인 한없는 긍지를 안고 혁신의 불바람을 일으켜나가는 전력 생산자들에게는 나라의 대동력 기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도 있다.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킨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갈 장엄한 투쟁의 해, 위대한 변혁의 해인 올해에 북창로동계급의 각오는 비상히 높고 기세 또한 웅천하다.

련합기업소의 드넓은 구배 길을 따라 쪽 늘어선 직판관들이 삼각형처럼 띄어선 혁신적 성과들은 전력생산자들의 눈썹에 슬결을 그대로 보여준다. 누구의 가슴속을 헤쳐보아도, 그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어도 승리에 대한 신념과 열정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하늘을 치받고 솟아있는 굴뚝들에서는 흰 연기가 꾸꾸역역 뿜어져나와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후덥게 해준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번창 승결연양 여기 북창의 동력기지에서 떠오르는 혁신의 불길.

우리는 들끓는 현지에서 기업 소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올해의 장엄한 진군길에서 이룩한 위훈의 일단을 전한다.

그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하루작업을 총화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내린 결심이었다. 그 누가 내 마음 불라치듯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자 하는 노레구절을 마음속으로 외우며서 선군길을 걸었으니 이 이야기인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승자복을 눈물겹도록 되새기며 오늘의 하루하루를 값있게 빛내여가고있는 전력생산자 속에는 이렇듯 평범한 한 전공도가 있었다. 이런 불타는 심장을 지닌 사람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4각장의 모든 호기들은 나날이 만부하의 동음을 세차게 울려가고있는 것이다. 지난날에 비하여 전력생산성

파를 부쩍 높여 앞서나가고있는 2각장의 전력생산자들의 기세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장장 정영철, 책임기사 장철호 등 부를 비롯한 직장원들은 설비관리, 로력관리를 빈틈없이 짜고들고 대증속에 깊이 들어가 마음과 사업, 감정과 사업을 갈아넣어 나가고있다. 모든 조작공, 운전공들이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기계순회와 점검보수작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다. 치열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은 3각장 10호기보이러 담당기사 리원일동무와 조작공, 운전공들속에서도 세차게 타고나고있다.

이들은 보수공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을수 있는 위협 개소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보 이라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북창로동계급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고있다. 발열량이 낮은 석탄이 들어오는 때도 있었고 주파수의 과다로 에를 먹는 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높은 기술능수준으로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가장 합리적인 조작방법을 능숙하게 받아들이며 부단한 단련을 과감히 해쳐나가고있다. 그들은 오늘도 강성국가건설의 전초선에 자기들이 서있음을 심장으로 자각하고 전력생산의 앞장에서 힘있게 달려가고있다.

수동부들이 붉은 기발을 휘두르며 전투를 지휘하였다. 연공작업반장 로영동동무와 연공 왕영은, 방성남동무들은 아이하게 높은 보이러폭풍을 받아들이어 올라갔다. 큰 10t의 공기에 열기블로코를 통째로 해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전투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높은 기술기능수준과 함께 인내성과 대담성이 요구되었다.

가장기전양에 의한 합리적인 작업방법, 이것이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재해를 합쳐 창안해낸 기술혁신안이었다.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활자가 오르내리며 공중에서 벌어질 해체 및 조립전투는 격전을 방불케 하였다. 그 무엇보다 신심과 열정을 쏟은 이쪽 전투원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이렇게 첫 호기 공기에열기대 보수를 성과적으로 끝낸 보수공들은 멀리 평양의 하늘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만세의 환호성을 터뜨렸다.

전초선에 우리가 서있다

운영단위의 4각장 전투현장이다. 유중환 타민발전기조각과 보이러들을 능숙하게 조종하는 조작공, 운전공들의 얼굴마다에 긴장된 빛이 어려있다. 올해에 들어와 기업소적으로 단련 앞자리를 차지한 14호기의 전력생산자들은 이말에도 기세를 울리고있다. 보이러, 타민발전기들이민 최정확, 리명철동무들이 조작공, 운전공들과 함께 설비들의 가동상태를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시하며 책임감을 한층 높여간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자랑스러운 위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 있었다.

월 마지막전투를 긴장하게 벌리고있던 지난 어느날이었다. 기세좋게 동음을 울려가던 보이러에 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었다. 보이러의 한 부분이 터져 운전을 멈추어야 할 위급한 순간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달 전력 생산계획을 완수하겠다고 맹세한 우리들이 아닌가! 순간이라도 보이러의 승결을 절대로 멈출수 없다.) 이런 각오를 안고 주저없이 열기를 내뿜는 중기속으로 뛰어

나를 때려나갈수 있었다. 월 마지막전투를 긴장하게 벌리고있던 지난 어느날이었다. 기세좋게 동음을 울려가던 보이러에 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었다. 보이러의 한 부분이 터져 운전을 멈추어야 할 위급한 순간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달 전력 생산계획을 완수하겠다고 맹세한 우리들이 아닌가! 순간이라도 보이러의 승결을 절대로 멈출수 없다.) 이런 각오를 안고 주저없이 열기를 내뿜는 중기속으로 뛰어

나를 때려나갈수 있었다. 월 마지막전투를 긴장하게 벌리고있던 지난 어느날이었다. 기세좋게 동음을 울려가던 보이러에 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었다. 보이러의 한 부분이 터져 운전을 멈추어야 할 위급한 순간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달 전력 생산계획을 완수하겠다고 맹세한 우리들이 아닌가! 순간이라도 보이러의 승결을 절대로 멈출수 없다.) 이런 각오를 안고 주저없이 열기를 내뿜는 중기속으로 뛰어

나를 때려나갈수 있었다. 월 마지막전투를 긴장하게 벌리고있던 지난 어느날이었다. 기세좋게 동음을 울려가던 보이러에 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었다. 보이러의 한 부분이 터져 운전을 멈추어야 할 위급한 순간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달 전력 생산계획을 완수하겠다고 맹세한 우리들이 아닌가! 순간이라도 보이러의 승결을 절대로 멈출수 없다.) 이런 각오를 안고 주저없이 열기를 내뿜는 중기속으로 뛰어

나를 때려나갈수 있었다. 월 마지막전투를 긴장하게 벌리고있던 지난 어느날이었다. 기세좋게 동음을 울려가던 보이러에 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었다. 보이러의 한 부분이 터져 운전을 멈추어야 할 위급한 순간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달 전력 생산계획을 완수하겠다고 맹세한 우리들이 아닌가! 순간이라도 보이러의 승결을 절대로 멈출수 없다.) 이런 각오를 안고 주저없이 열기를 내뿜는 중기속으로 뛰어

나를 때려나갈수 있었다. 월 마지막전투를 긴장하게 벌리고있던 지난 어느날이었다. 기세좋게 동음을 울려가던 보이러에 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었다. 보이러의 한 부분이 터져 운전을 멈추어야 할 위급한 순간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달 전력 생산계획을 완수하겠다고 맹세한 우리들이 아닌가! 순간이라도 보이러의 승결을 절대로 멈출수 없다.) 이런 각오를 안고 주저없이 열기를 내뿜는 중기속으로 뛰어

나를 때려나갈수 있었다. 월 마지막전투를 긴장하게 벌리고있던 지난 어느날이었다. 기세좋게 동음을 울려가던 보이러에 뜻하지 않은 정황이 조성되었다. 보이러의 한 부분이 터져 운전을 멈추어야 할 위급한 순간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달 전력 생산계획을 완수하겠다고 맹세한 우리들이 아닌가! 순간이라도 보이러의 승결을 절대로 멈출수 없다.) 이런 각오를 안고 주저없이 열기를 내뿜는 중기속으로 뛰어

푸른 숲 우거진 조국강산을 후대들에게 물려주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무심기는 전군중 적운으로 하여야 합니다.》

평안남도에서 전국 모든 산들에 나무를 심는 사업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떨쳐나서야 성 파적으로 보장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

의 일꾼들과 당원들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첫 나무심기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었다. 그리하여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 나무모를 정성껏 키워 올해 식수절에만 도 수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당의 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도체신관리국, 도미술창작사, 도인민병원, 도작가동맹위원회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안고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비하여 전력생산성 파를 부쩍 높여 앞서나가고있는 2각장의 전력생산자들의 기세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장장 정영철, 책임기사 장철호 등 부를 비롯한 직장원들은 설비관리, 로력관리를 빈틈없이 짜고들고 대증속에 깊이 들어가 마음과 사업, 감정과 사업을 갈아넣어 나가고있다. 모든 조작공, 운전공들이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기계순회와 점검보수작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다. 치열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은 3각장 10호기보이러 담당기사 리원일동무와 조작공, 운전공들속에서도 세차게 타고나고있다.

이들은 보수공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을수 있는 위협 개소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보 이라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북창로동계급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고있다. 발열량이 낮은 석탄이 들어오는 때도 있었고 주파수의 과다로 에를 먹는 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높은 기술능수준으로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가장 합리적인 조작방법을 능숙하게 받아들이며 부단한 단련을 과감히 해쳐나가고있다. 그들은 오늘도 강성국가건설의 전초선에 자기들이 서있음을 심장으로 자각하고 전력생산의 앞장에서 힘있게 달려가고있다.

수동부들이 붉은 기발을 휘두르며 전투를 지휘하였다. 연공작업반장 로영동동무와 연공 왕영은, 방성남동무들은 아이하게 높은 보이러폭풍을 받아들이어 올라갔다. 큰 10t의 공기에 열기블로코를 통째로 해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전투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높은 기술기능수준과 함께 인내성과 대담성이 요구되었다.

가장기전양에 의한 합리적인 작업방법, 이것이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재해를 합쳐 창안해낸 기술혁신안이었다.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활자가 오르내리며 공중에서 벌어질 해체 및 조립전투는 격전을 방불케 하였다. 그 무엇보다 신심과 열정을 쏟은 이쪽 전투원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이렇게 첫 호기 공기에열기대 보수를 성과적으로 끝낸 보수공들은 멀리 평양의 하늘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만세의 환호성을 터뜨렸다.

봄철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나무심기는 전군중 적운으로 하여야 합니다.》

평안남도에서 전국 모든 산들에 나무를 심는 사업은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이 떨쳐나서야 성 파적으로 보장할수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

의 일꾼들과 당원들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한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올해 첫 나무심기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었다. 그리하여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 나무모를 정성껏 키워 올해 식수절에만 도 수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당의 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도체신관리국, 도미술창작사, 도인민병원, 도작가동맹위원회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안고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비하여 전력생산성 파를 부쩍 높여 앞서나가고있는 2각장의 전력생산자들의 기세 또한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장장 정영철, 책임기사 장철호 등 부를 비롯한 직장원들은 설비관리, 로력관리를 빈틈없이 짜고들고 대증속에 깊이 들어가 마음과 사업, 감정과 사업을 갈아넣어 나가고있다. 모든 조작공, 운전공들이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기계순회와 점검보수작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가고있다. 치열한 사회주의증산경쟁의 불길은 3각장 10호기보이러 담당기사 리원일동무와 조작공, 운전공들속에서도 세차게 타고나고있다.

이들은 보수공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있을수 있는 위협 개소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보 이라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북창로동계급의 영예로운 본분을 다해가고있다. 발열량이 낮은 석탄이 들어오는 때도 있었고 주파수의 과다로 에를 먹는 때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높은 기술능수준으로 이곳 로동자, 기술자들은 가장 합리적인 조작방법을 능숙하게 받아들이며 부단한 단련을 과감히 해쳐나가고있다. 그들은 오늘도 강성국가건설의 전초선에 자기들이 서있음을 심장으로 자각하고 전력생산의 앞장에서 힘있게 달려가고있다.

수동부들이 붉은 기발을 휘두르며 전투를 지휘하였다. 연공작업반장 로영동동무와 연공 왕영은, 방성남동무들은 아이하게 높은 보이러폭풍을 받아들이어 올라갔다. 큰 10t의 공기에 열기블로코를 통째로 해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전투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높은 기술기능수준과 함께 인내성과 대담성이 요구되었다.

가장기전양에 의한 합리적인 작업방법, 이것이 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창조적재해를 합쳐 창안해낸 기술혁신안이었다. 하루에도 수십차례씩 활자가 오르내리며 공중에서 벌어질 해체 및 조립전투는 격전을 방불케 하였다. 그 무엇보다 신심과 열정을 쏟은 이쪽 전투원들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였다. 이렇게 첫 호기 공기에열기대 보수를 성과적으로 끝낸 보수공들은 멀리 평양의 하늘을 우러르며 마음속으로 만세의 환호성을 터뜨렸다.

수필 3월에 대한 생각

얼마전 하루생활의 이야기를 나누며 새 식구가 텔레비 콘수상기앞에 모여앉을 때였다. 텔레비존에서는 어느새 식수절 한 군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나무를 심시는 력사적인 장면을 수록한 영화편이 방영되고있었다.

한삼, 두삼 정히 뜬 흙을 나무구멍이에 채우시고 신발에 흙이 들어가는것도 마다 하지 않으시며 중비 나무와 목련을 심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우를수록 나의 가슴속에서는 뜨거운 격정이 솟구쳐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 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3월은 나무심기철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우내 얼었던 땅도 부풀어오른다. 이 봄날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60여년 전 어버이수령님께서 모란봉에 오르시어 길옆에 꺾어져 드리운

소나무가지와 보시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함부로 다치지 말아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자애로운 모습에 더욱 뜨겁게 새겨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산에 오르시어 조국의 산마다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면 빨리 자라고 향기로운 꽃이 피는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봄소 나무를

형식주의라고 지적하시며 자신께서는 식수절에 나무를 심었다는 형식을 차리려는것이 아니라고 하신 의미깊은 말씀도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지 같았다. 그날부터 모란봉의 소나무, 장산의 아카시아나무와 함께 중비나무, 목련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애국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을지언정, 하기에 우리 인민은 3월이

오면 잊을수 없는 그날들의 사연을 먼저 생각한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묻곤 한다.

3월은 나무심기철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겨우내 얼었던 땅도 부풀어오른다. 이 봄날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는 60여년 전 어버이수령님께서 모란봉에 오르시어 길옆에 꺾어져 드리운 소나무가지와 보시고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함부로 다치지 말아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자애로운 모습에 더욱 뜨겁게 새겨지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장산에 오르시어 조국의 산마다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면 빨리 자라고 향기로운 꽃이 피는 아카시아나무를 많이 심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봄소 나무를

연탄군산림경영소에서 양묘장에 비낀 향토애

연탄군산림경영소라고 하면 양묘장을 잘 꾸리고 헤마 다 여러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는 단위로 알려져있다. 올해에도 산림경영소에서는 창성이깔나무, 평안단풍나무를 비롯하여 배수입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였을뿐아니라 사물들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신삼나무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림조성사업을 전방성 있게 계획적으로 하자면 나무모모양을 앞세워야 합니다.》

나무모생산이 수림화, 원림화의 첫 공적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한 산림경영소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

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그 날에 이들은 원형야외 삼목장들에 무동력원동분무기 도 설치하고 나무모밭에 자연 호름식분수도 하였다. 그리고 흙을 들어가며 물을 메고 덧 거름도 주면서 그루마다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올해에도 나무모를 제 때에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일꾼들은 나무모를 키워내는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나무의 사물들을 더욱 높이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기때문이었다. 《얼마나 많은 물을 들여 키운 나무모입니까. 그래서

양에 담그었다. 그리고 젖은 가마니나 마대에 넣어 윤관수단들에 차곡차곡 실어보냈다. 포장용기가 모자라면 윤관수단들에 젖은 가마니 또는 복대기를 깔고 나무모를 실은 다음 그우에 물에 적신 가마니를 싸었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무모를 탁물우림에 담그었다가 포장해서 실어보내는데도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탁물우림을 현지까지 가지고가 나무심기에 동원된 근로자들이 나무모를 다시 담그었다가 쉽게 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심은 나무들에 물을 제때에 충분히 주도록 도와주었다. 본사기자 김창길

연탄군산림경영소에서 양묘장에 비낀 향토애

연탄군산림경영소라고 하면 양묘장을 잘 꾸리고 헤마 다 여러가지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는 단위로 알려져있다. 올해에도 산림경영소에서는 창성이깔나무, 평안단풍나무를 비롯하여 배수입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였을뿐아니라 사물들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 신삼나무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산림조성사업을 전방성 있게 계획적으로 하자면 나무모모양을 앞세워야 합니다.》

나무모생산이 수림화, 원림화의 첫 공적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한 산림경영소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

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그 날에 이들은 원형야외 삼목장들에 무동력원동분무기 도 설치하고 나무모밭에 자연 호름식분수도 하였다. 그리고 흙을 들어가며 물을 메고 덧 거름도 주면서 그루마다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올해에도 나무모를 제 때에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일꾼들은 나무모를 키워내는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나무의 사물들을 더욱 높이기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기때문이었다. 《얼마나 많은 물을 들여 키운 나무모입니까. 그래서

양에 담그었다. 그리고 젖은 가마니나 마대에 넣어 윤관수단들에 차곡차곡 실어보냈다. 포장용기가 모자라면 윤관수단들에 젖은 가마니 또는 복대기를 깔고 나무모를 실은 다음 그우에 물에 적신 가마니를 싸었다.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나무모를 탁물우림에 담그었다가 포장해서 실어보내는데도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탁물우림을 현지까지 가지고가 나무심기에 동원된 근로자들이 나무모를 다시 담그었다가 쉽게 하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심은 나무들에 물을 제때에 충분히 주도록 도와주었다. 본사기자 김창길



봄철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다. -문수봉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찍음

볼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쌀쌀한 바람이 불어치는 이른바...

회천시국도 환경보호관리부도로보수관리에서 도로관리원으로 일하고있는 김정현은 예전보다 일찍 삼과 비자루를 들고 집을 나섰다.

집문밖을 나선 그의 입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어제 저녁 안락하와하던 아내의 말이 그냥 귀찮은 뉘를 뻔했다.

《현옥이일을 어쩌면 좋아요? 오선 밭도 통 안 먹고 벽만 멍하니 바라보다...》

인해는 너무도 속상하여 한동안 말을 더하지 못하였다.

그 말을 듣고 장남을 뜯어내며 새운 김경현은. 그는 또 한번 숨을 깊게 내쉬었다. 생각할수록 마음이 무거웠다.

집안의 외동딸로 고이 자란 현옥이가 하반신마비로 자리에 누운지 벌써 여섯달째였다. 그것도 한창 꽃피는 처녀시절에 말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치료가 있었으나 별반 차도가 없었다. 이제는 의사선생님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고 묻지도 않았다.

김정현은 자기가 어느 사이에 당당한 도로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했다.

늘 하던대로 밤사이 애운 곳을 메우고 도로를 쓸어나가는 그의 머리속에는 체제되어 수십년간 도로관리원으로 일해 온 날들이 선히 떠올랐다.

국도관리총동원운동열성자대회에 참가하여 경연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왔을 때의 일도 생각났다.

그때 현옥은 침상에서 아버지 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 축하해요! 나도 아버지처럼 일을 잘하여 경연하는 원수님을 만나뵙을수 있을까요?》

그녀는 뉘에게 무슨 말을 할수 있었겠나. 제 딸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온 동네가 부러워하던 현옥이었다.

실화

자랄수록 아침이슬을 머금은 꽃망울처럼 곱게 피는 그를 두고 고은 인물이 일 또한 잘하니 동네의 자랑이라고들 하였다.

당연정속에서 인민의 봉사자로 일하면서는 자기의 일터를 번듯하게 꾸리고 제손으로 엮은 꽃다발을 위한 장군님에게 드리겠다고 열성은 얼마나 또 높았는가.

그러던 그가 건설장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당가에 실려 병원으로 갔을 때 심장이 뜯겨 나오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통 통 숨을 잇는 김경현이었다.

땀-땀- 땀-땀- 울리는 정적소리에 김경현은 생각에서 깨어났다. 승용차 한대가 그의 앞을 지나고 있었다.

얼마후 김경현은 집으로 향하였다. 그의 손에는 싱싱한 나무줄기와 잎으로 꽃을 형성한 다발이 들려있었다.

(이제 현옥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을 가져다줄까?)

가슴이 차가웠다. 어릴적부터 꽃을 좋아했던 현옥이었지만 이제와는 다르다. 꽃이 피는 순간이 되면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거운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김경현은 놀랐다. 땅굴전 도로에서 그의 앞을 지나던 승용차 한대가 그의 앞을 지나고 있었다.

부엌에 들어서서 그의 손을 급히 잡아끌며 안해가 방안을 가리켰다.

놀라는 인기척이 방안에 느껴졌는지 문지방을 넘어 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현옥이 아버지, 빨리 올라오십시오.》

방안에는 시장위원회의 한 일군이 앉아있었다. 시에서 누구보다 바쁜 그가 현옥이에게 있어있던 것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는 여느때처럼 손에 책을 쥐고

꽃

있는 현옥의 모습이 더욱 놀라웠다.

(어찌된 일인가? 아침까지만도 모든것을 포기했던 저 애가 아닌가?)

《그의 속생각을 읽기라도 한듯 일군이 말하였다.》

《좀더 일찍이 와보았어야 했을걸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내 좀 현옥이를 욕했습니다.》

《기어 대지를 밟고 일어선다는 현옥의 의지, 그것은 그 한사람 만의 것이 아니었다.》

《어느날인가 세 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다녀오는 길이라서 현옥의 의지, 그것은 그 한사람 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치료전투가 시작되었다.》

《말까지 지켜나야 한다고 강요를 먹고 접어든 일이요니 현실이 없었다.》

《영예로운 인민 김시권시인처럼 나도 그렇게 살수 있을까.》

《바로 그때 호실에 들어서서 사람이 있었다. 시의 낮익은 얼굴이었다.》

《그 현옥이의 손을 다정히 잡고 말하였다.》

《현옥이 정양의 병원에 입원시켜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준비사업은 다 되어 있으니 이제 떠나면 됩니다.》

《말을 태우고 떠나는 자를 오도록 바라는 김경현의 가슴 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것이 솟구쳐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입니다.》

다

고있었다.

어려운 치료전투가 다시 시작되었다.

그의 눈앞에 우린 현옥이가 꼭 일어설기를 믿는다고 고무하며 뜨거운 지성을 바친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단위의 일군들, 시인민변원, 시체신소, 어느 한 피복공장 등 시의 수많은 일군들의 미려운 모습이 떠올랐다.

《3일동안에만도 현옥이를 놓고 진행형의 사형의회는 수차...》

《아직 서머서머해하는 현옥이의 마음을 능처주려고 우스개소리를 골짜하는 과장선생님이며 이제 꼭 일어설까. 그리고 신심을 주는 담담의사선생님 그리고 현옥이에게 꼭 병을 털고 일어 서서 돌이 달리기경기를 해보자는 담담간호원...》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치료전투가 시작되었다.》

《말까지 지켜나야 한다고 강요를 먹고 접어든 일이요니 현실이 없었다.》

《영예로운 인민 김시권시인처럼 나도 그렇게 살수 있을까.》

《바로 그때 호실에 들어서서 사람이 있었다. 시의 낮익은 얼굴이었다.》

《그 현옥이의 손을 다정히 잡고 말하였다.》

《현옥이 정양의 병원에 입원시켜 집중적인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준비사업은 다 되어 있으니 이제 떠나면 됩니다.》

《말을 태우고 떠나는 자를 오도록 바라는 김경현의 가슴 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것이 솟구쳐올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끝없이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높이 받들어나가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입니다.》

다

도 위중한 병을 안고있는 몸임에도 내색없이 한 처녀를 위해 민길을 달려오나, 바라볼수록 그는 진정 친어머니의 모습이였다.

현옥이는 한발자국도 한발자국 걸음을 옮겨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남을 따라 현옥이를 찾는 사람들은 더욱 많아졌다. 자장도에서 평양에 왔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듯 병원에 들렀다. 그런 그를 두고 입원환자들도모두가 부러워하였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었고 모두들 이처럼 귀찮아한 딸인가!)

현옥은 짙이 나는대로 뺨을 찾아들었다. 그리고 쉬임없이 글을 썼다.

평범한 자장도의 한 처녀를 위해 지성을 바친 한 어머니고 마음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위대한 대원수님을 그대로인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에 대하여, 어머니의 뜻을 참되게 만들어가는 일군들에 대하여 그리고 대리적, 김성룡, 현영금, 전향옥을 비롯한 한 의사, 간호원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에 대하여...》

《그모두가 그대로 있었고 노래였다. 그것은 그대로 고마운 어머니 우리 사회와 세상에서 제일인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찬가였다.》

《의료인들간의 방조속에 현옥이의 걸기힘을 거둬들었다.》

《과장 김호실은 현옥이에게 군대의 지휘관처럼 명명하듯 말했다.》

《너도 열병행진을 하는 군인들을 보았지. 그들처럼 좀더 높이, 좀더 힘있게, 하나, 둘, 하나, 둘...》

비오듯 흐르는 밤을 훑을새

다

어 전해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한두번만 흘리지 않았다.

남과 달이 흘렀다.

그나날 여러차례의 수술이 진행되어 현옥이의 건강회복에 이바지되었다.

이렇게 현옥이는 200일간의 치료과정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병원의 의료인들간의 뜨거운 비배운동에 힘입고 돌아왔다.

《당시, 하나, 둘...》

현옥이의 몇걸음앞에서 구령을 치는 과장의 얼굴에도 그리고 한걸음앞을 가가스로 발을 움직이는 현옥의 얼굴에도 땀이 비오듯 흘렀다.

《대시, 하나, 둘...》

다

어 전해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한두번만 흘리지 않았다.

남과 달이 흘렀다.

그나날 여러차례의 수술이 진행되어 현옥이의 건강회복에 이바지되었다.

이렇게 현옥이는 200일간의 치료과정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병원의 의료인들간의 뜨거운 비배운동에 힘입고 돌아왔다.

《당시, 하나, 둘...》

《대시, 하나, 둘...》

다

어 전해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한두번만 흘리지 않았다.

남과 달이 흘렀다.

그나날 여러차례의 수술이 진행되어 현옥이의 건강회복에 이바지되었다.

이렇게 현옥이는 200일간의 치료과정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병원의 의료인들간의 뜨거운 비배운동에 힘입고 돌아왔다.

《당시, 하나, 둘...》

《대시, 하나, 둘...》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낫은사파나무재배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본원에서- 본사기자 김 종 훈 찍음

천마강산 조약깽 권양소대장 리성화 동무는 당의 부장조국건설수상을 높이 받들고 열일들의 만가등을 보장하기 위해 남다른 수고를 바쳐가고있다.

제들을 풀어내자함으로써 팜물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개에서 생산되는 견고고인된 여러가지 기술제품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되어 있고 사고요소들도 미연에 방지할수 있게 되었다.

리성화동무는 세계의 요구에 맞게 일련의 사업에서도 앞장서서 소대를 이끌어 나가고있다. 개곳한 관심을 바쳐가고있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로동농원원 강 성 희

음악 창작과 민족적 정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온 사회를 길일성-김정일주의화하기 위한 역사적전투를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오늘날의 투쟁에서 음악예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참으로 크다. 음악예술창작에서 민족성을 구현하는것은 우리 음악예술을 시대와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갈수 있게 하는 주체음악예술발전의 근본요구이다.

창작자들은 우리 민족음악의 고유한 정서적특질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음악창작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감정과 정서, 풍부한 생활을 폭넓게 반영한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창조할수있을데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창작자들은 우리 민족음악의 고유한 정서적특질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음악창작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감정과 정서, 풍부한 생활을 폭넓게 반영한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창조할수있을데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창작자들은 우리 민족음악의 고유한 정서적특질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음악창작에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감정과 정서, 풍부한 생활을 폭넓게 반영한 민요풍의 노래를 많이 창조할수있을데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고향 땅이 잊지 못하는 사람

창도군 병우협동농장 농장원이었던 김철성동무

창도군 읍소재지에서 얼마쯤 달리러만 부르짖어대고 쓴 노란이 나타난다. 앞에는 아아한 산발들이 연이어 솟아올라온다. 굽이굽이 수심리 령길에 따라 정적 울려퍼지고 아득히 뻗어오른 평경만 굽어보일뿐 마을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수심리를 더 가야 명우리에 가닿게 되는 것이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창도군 명우리, 군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주변이 온통 산으로 둘러막힌 말그대로 심산산골이다. 이 외진 벽촌에 청춘의 아름다움은 꿈도 희망도 고스란히 묻고 고향땅을 남부럽지 않게 꾸며갈 한마음으로 애국의 후미를 띠고 평정을 강그러 바친 한 농장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